

제11강 해체주의에서 Environmental Conditioning까지의 움직임

(1교시)

◆ 해체주의와 해체건축

※ 학습목표

해체주의와 해체건축 특성에 대해서 파악한다.

▲ 해체주의와 해체건축

① 광의

- 형태, 공간 등 모든 의미의 절대 질서, 법칙, 정형에 반대함.

② 협의

- 2차 대전 이후 비정형주의 중 1980년대의 신주관적주의 환경, 역사, 반 모던, 탈 모던, 반 기계 등에 대한 고민 없이 순수 형태 아방가르드적 속성이 집중
- 또다른 보편적 심리, 다다적 속성

③ 전개과정

- 영국 AA School 의 Koolhaas, Zenghelis (신구성주의)
- B. Tschumi, J. Hadid (해체) 의 실험들
- 러시아 구성주의 토대로 비정형계열의 재해석
- 아인스만, 존슨의 출판과 강연: 비지니스화, 이론화
- 데이다의 해체철학, 하이데거의 'Abbau', 러시아 형식주의에서 낫설게 하기

④ 해체전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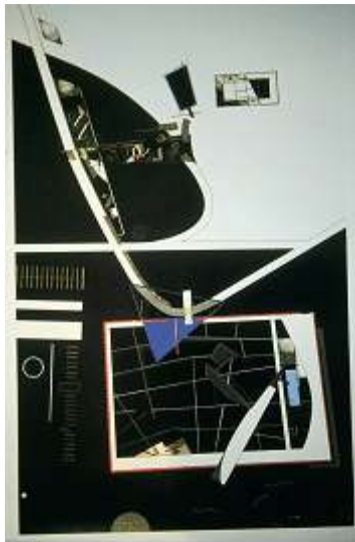
- Einensman: 비정형 입방체 + 면 파내기 + 틀기 -> 병렬 + 선형부재



- Tschumi: 프로그램, 입면체, 부지 폭발
최소 기능, 형태, 기하인 최소 단위로 나눔. 최소 단위를 레퍼토리화



- Liberskind: 선형조형어휘를 무질서하게 교차 - 탈중력
- Hadid: 기본 매스를 부정형으로 공존, 겹치기등 탈중력을 추구
- Gerry: 박물관 시리즈 (유기 비정형)



▲ 건축적 환경과 도시적 환경의 고민

① 1960년대

- 공해, 구도심 붕괴
- 건축적 기억 상실증
- 부동산 건축, 대형 공간, 경제 고밀도

③ 치유책

- 디자인 방법론
- 사회운동: Urban Conservation
- 외부공간의 휴머니제이션 문제
- 인류학적인 접근

제11강 해체주의에서 Environmental Conditioning까지의 움직임

(2교시)

◆ Neo nationalism과 Environmental Conditioning

※ 학습목표

Neo nationalism과 Environmental Conditioning의 흐름을 이해한다.

▲ Neo nationalism

① 개요

- 건축을 기술, 경제 부동산 등에서 해방시키고 건축의 오토노미를 찾자는 운동
- 건축의 인문학, 상징, 고전을 찾고자 함.
- 도시적 환경과 역사주의 성격이 상함.
- 근대성과 고전 사이의 공통적 보편성을 찾고자 함.

② 전개

- 1930년대: 이탈리아 합리주의
- 1950~60년대: BBPR, C Armonin, rossi의 '건축과 도시'
- 1970년대: 아이모니노 건물들
- 1980년대: 베니스 비엔날레 전시회

③ Rossi

- 산업혁명 이전 'Architype' 의 절대가치
산업화 시대 표준화, 단순 기하의 통합
- 형태적인 상업화 시대의 고전 모델 찾고자 함.
- 소재: 도시적 맥락과 도시 내 역사, 도시 조직 이론 (장소 이론, 맥락주의 등 포함)
- 성기 모더니즘적 대안: 소비, 상업, 후기 자본주의
벤추리- 대중주의, 로씨- 역사, 고전, 엄숙주의
- 메모리: Urban Fact 연결
Figuration: 단순 기하 형태에서 추출
Territory Monument 중심의 구역 단위를 연결하여 Architype 추출

④ Krier

- 극단적 반 기계 운동
- 순수수공예 환원 주장
- 건축 원형 단위 페이퍼 아키텍트

⑤ Ungers

- 전체적으로는 로시와 유사
- 로시보다 순수기하, 규칙적 기하구성에 가까움.

▲ Environmental Conditioning

- ① 기존의 축조 법칙, 기하에 반대
- ② 환경단위, 스케일의 재구축, 자연화 -> 신표현주의
- ③ 다다적 인문 축조
- ④ 스케일을 지운 거석 구조물: 기계 문명 앞에 무기력한 인간,
슈퍼 스튜디오의 드로잉

